

예술교과 PLC 활동을 통한 교사의 교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가능성 탐색

류 미 해*

본 연구는 PDS를 이론적 배경으로 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PDS의 실천적 연구 방법으로 전문 연구자와 초등 저학년 현장 교사로 이루어진 전문가 학습 공동체(PLC)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통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PDS와 PLC에 대해 알아보고 (예술)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국 예술 교사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 후 본 연구의 전문가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및 활동 체계에 대해 제시하고 활동을 통한 초등 저학년 예술교과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수업 전반에 관한 인식과 예술교과 현장 수업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주제어 : PDS, 전문가 학습공동체, 예술교과, 수업연구

차 례

I. 서 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제(PDS)와 전문가 학습공동체(PLC)
2. C-교육대학교와 S-초등학교의 협력체제 구축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방법 및 절차

IV. 학습 공동체 활동의 실제 및 논의

1. PLC 활동이란?
2. 함께하는 수업 만들기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00002)

** 청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론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교실 현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현장 수업에 대한 관심은 수업이 곧 교육의 실체이며 한 나라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실현인 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연구 방법 및 접근에 대한 고민들이 구체화되고 실체화 되며 다양해지고 있다.

수업에 대한 연구가 양적인 연구에서 질적인 연구로 그 방향을 잡아간 것이 1980년대 말부터이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교사의 자기 주도적 역량에 초점을 둔 문헌 연구를 비롯한 사례 보고연구들이 나오면서 빠른 속도로 결과물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 중 학교개혁과 교사개혁을 위한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학계의 주요 연구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엄훈, 2010, p. 79; 이현명 외, 2011, p. 51).

이러한 교사 교수 역량에 대한 관심과 현장의 필요를 배경으로 C-교육대학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제(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이후 PDS) 연구¹⁾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수업 주체인 교사의 교수 역량을 확산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이다.

이러한 PDS 구축을 위한 선제 작업 중 하나가 대학과 학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한 현장 적용의 실천적 방법으로 연구자와 현장 교사가 전문가 학습공동체(이 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자기 주도적 교수역량 강화 및 확산을 위한 PDS 구축 연구”라는 C-교육대학교 연구의 일환으로 S-초등학교와 협력 하에 구성된 학습공동체 활동 보고를 기본적인 틀로 한다. 이를 통해 학습 공동체 활동 체제에 대한 의미를 규정해 보고 교육 현장에서 학습공동체 구성이 갖는 예술 교과 교사의 교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의미와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예술교과의 초등 교육 현장의 현황과 교사들의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

1) <교사의 자기주도적 교수역량 강화 및 확산을 위한 교사전문성개발체제(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PDS)구축 연구>는 C-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초점이 예술교과 중 음악교과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저학년(1-2학년) 교육과정에 음악, 미술, 체육이 통합 제시된 있는 이유로 예술 교과 전반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본 제한점은 연구의 선제 조건으로 본 고 III장에서 상술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활동의 초점을 가능한 음악교과에 맞추되 저학년의 교과과정에 무리한 의도성을 두어 분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업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을 모아 연구를 진행했음을 밝힌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예술교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교과 중점의 통합 예술교과를 의미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제(PDS)와 전문가 학습공동체(PLC)

교육 현장 연구 중 수업을 하는 교사를 주체로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실질적인 지식(practical knowledge)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선경, 2011, p. 83 재인용).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는 ‘교과교육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과 ‘교과내용학적 지식(content knowledge)’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 중 예술교과는 교과 특성상 학급담임제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에서 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분량이 다른 교과에 비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과의 내용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실제적인 활동중심의 성격을 더 붙여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예술교과를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며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정다운, 2011, pp. 26-27)²⁾.

미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에 관한 엄격한 자격 기준(standards)을 정해서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초·중등 예술(음악) 교사 교육을

2) 정다운의 연구는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 수업, 학생, 교육환경, 교육전문성, 음악전문성 등의 5가지 항목을 분류하여 초등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였다.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준 마련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석문주(2008)가 ‘미국 음악교사기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연구한 내용 중 음악교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음악교사기준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pp. 26-27).

NCATE(교사교육인증을 위한 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2002)는 예술교사의 교사교육기준을 철학과 당위성(Philosophy and Justification), 교육과정(Curriculum), 수업(Instruction), 교생실습(Student learning), 평가(Assessment), 수업 운영(Classroom management), 전문성 발달(Professional growth and development)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사교육기준이 미국 각 주에서 채택되고 있다(p. 28).

NBPTS(전문적 교수기준자격을 위한 협의회, 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는 교사가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능한 교사가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높고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한 교사를 인정하는 전국적인 자발적 시스템을 제공하고, 교사 자격을 전국자격(National Board Certification)으로 통합하고 있다. 전국위원회 인증자격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시켜 교사학습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Developmental Specific Knowledge), 그리고 폭넓은 내용과 학문영역에 대한 지식(Breadth of Content and Discipline Area)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한다. 하위 개념으로 교과별 교사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반성, 전문가 발전, 전문적 기여(Reflection, professional growth and professional contribution)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p. 30).

INTASC(초임교사를 위한 주 연합 평가와 지원 협회, 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예술 교육 위원회(Arts Education Committee)에서는 지식(knowledge), 성향(disposition), 수행(performance)의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하위 개념으로 10개의 예술교사에 대한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목에 대한 지식(Subject Matters Knowledge), 학생발달(Child Development), 학습자 다양성(Diversity of Learners), 수업전략(Instructional Strategies), 학습 환경(Learning environ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업계획과 통합(Planning/Integrated Instruction), 평가(Assessment), 자아반성/전문가발전(Self Reflection/professional development),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등 이다(p. 32).

석문주(2008)는 현장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와 행동의 지속적인 연구과 탐구를 통해 교사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실습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교육실습학교의 운영(Professional Developmental School)을 들어 대학과 학교의 협력관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p. 53).

PDS(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는 교사와 학교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대학과 일선 학교가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체제 혹은 연합체를 의미한다(Holmes Group, 1986). 본 연구에의 PDS는 School 대신 System을 사용 하는데 이는 학교와 대학의 협력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구원회, 2011, p. 71).

PDS가 가지는 특징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책모성과 질 보장(accountability and quality assurance), 협력(collaboration), 평등성과 다양성(equity and diversity), 구조, 자원, 역할(structure, resources and roles)이 그것들이다(구원회 외, 2011, p. 197). 이들 중 협력 체제의 구축이 중요한데 PDS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제가 바로 전문가 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이 후 PLC)이다.

PLC는 현장 교사와 기관이나 대학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실행을 통해 연구해 가는 체계이다. 이러한 ‘실행하기’를 통한 교육 현장에 대한 접근과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질적 요구에 한 걸음 다가서려는 실제적인 시도일 뿐 아니라 수업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연구와 적용, 또는 이론과 실제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접근법으로 의의를 갖는다.

2. C-교육대학교와 S-초등학교의 협력 체제 구축³⁾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더하기 위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지 교과를 비롯한 인문, 과학 교과에서는 질적, 양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구원회 외, 2010; 구원회, 2011; 구원

3) 본 단원의 내용은 필자의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 자료(2012)의 내용 중 일부를 재인용한 것이다.

회, 2012; 김정은, 2010; 김미혜, 2010; 김용, 2011; 박영희 외, 2010; 나귀수, 2010). 그러나 예술교과 특히 음악 교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다른 교과들에 비해 미비한 상태로 이에 대한 관심과 체계가 필요하다.

C-교육대학교와 S-초등학교의 PDS 협력체는 2010년 3월에 결성되었으며, 협력 체제는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행정요원과 S-초등학교 교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매년 참여 교사와 연구자로 이루어진 구성원 뿐 아니라 진행 틀도 수정, 보완되어 실행되어 왔다.

본 연구를 위한 S-초등학교와의 PDS는 초등 학급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학년별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그룹은 대학연구자 1인과 참여 교사 다수(약 4-6명)로 구성되었다. 이 외 연수의 전체적인 진행 및 의견을 조율하고 적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PDS 프로그램 담당 전문연구자 1인과 행정요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학습공동체(PLC) 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이 적용하는 실체에 대한 고민으로 운영 체계를 비롯한 운영 내용의 틀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은 열린 수업, 열린 교실이라는 키워드를 들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장 수업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공유나 공감에 대한 부분이다.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이 현장 수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를 공유하는 정보로써 객관화하는데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일단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객관적 정보로 공유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런 상황의 수업 공개이며, 공개된 수업을 보는 방법들일 것이다. 이를 위한 공동체의 조직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접근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방향으로는 운영 내용의 틀에 대한 연구이다. 프로토콜 또는 모듈만들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혁규 외(2012) 연구자들의 수업 비평 연수 프로그램 모듈개발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모듈이란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하위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모듈은 몇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중략...이 활동의 과정과 절차를 어느 정도 상세화해 두면 개별 강사의 특성과는 다소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준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일정의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프로토콜이란 외교상의 의전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이라는 맥락 속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활동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의미한다(pp. 49-50).

본 학습공동체를 위해 C-교육대학교에서 연구 제시한 모듈은 모두 14가지의 활동 주제들로 구성되었는데 <표 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다.

각 모듈은 실제 PLC 활동을 통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활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의 실제적인 흐름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C- 교육대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모듈

1. 소통의 중요성 생각하기
2. ()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나누기
3. 공동 수업 설계
4. 수업 딜레마 자문하기
5. 수업 지도안
6. 자기 수업 이야기
7. 수업 관찰하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8. 수업 관찰하기 - 교사의 경청
9. 수업 관찰 내용 비교하기
10. 수업 대화 나누기: 성공 사례 분석
11. 학생 결과물 읽기1
12. 학생 결과물 읽기2
13. 자기 교육 생애사
14. 학생에 대한 이해

본 연구의 PLC 활동은 제시된 모듈을 기본 바탕으로 활동 상황과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이를 재구성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하였는데, 다음 장의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 제시한 각 모임의 주제 선정이 위 제시한 모듈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에 적용되었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학습공동체는 연구자인 필자를 포함해 8인으로 구성되었다. C-교육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S-초등학교의 현장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예술교과(이 중 음악 교과를 중점으로)를 주제 교과로 정하였다. 주제 교과 선정은 S-초등학교의 수업 교과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같은 학습공동체 구성원 선생님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각 학습공동체 구성은 S-초등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로 구성한다는 선제된 연구조건 하에 이루어 졌다. 이에 2학년 학습공동체의 예술(음악)교과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PLC는 PLC활동을 통한 활동 전반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모듈 만들기에서부터 적용에 관한 전반, 그리고 적용 결과 등 이다. 더불어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연구대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다. 구성 방법에서 어떠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학습공동체 활동의 방향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활동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⁴⁾ 이에 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연구대상으로써 뿐 아니라 연구의 진행에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C-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인 연구자(필자)와 S-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 5인(교사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 E로 임의로 정함), 보건 교사 1인, 그리고 수석교사 1인으로 예술교과 수업 학습공동체(이하 학습공동체)가 구성되었다. 다음 <표 2>은 학습공동체 참여 교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공동체 구성원을 각각 살펴보면 교사 A는 본 학습공동체의 연락책으로 자료의 분배, 활동 시간 조정이나 내용을 미리 연락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술교과 수업 전반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학구적인 열의가 큰 교사이다.

교사 B는 남자교사로 주로 체육 수업을 많이 하며, 방과 후 활동지도 등을 맡고 있다. 수업 공개나 수업에 대한 의견 제시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활동이 지속되고 인간적인 유대가 형성되면서 조금씩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교사 C의 경우 교사 A와 비슷한 연배이나 10여년 정도의 공백기 후에 초등교사로 복귀하였다. 예술교과 전반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음악 수업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사 D는 교직 생활 중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학습공동체 활동에 다소 시간적 제약을 받았으나 함께 만드는 수업에서 대표교사로 자신의 교실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이야기 나누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

4) 이에 대해 김민조의 ‘학교내 교원간 의사소통 네트워크 분석: S초등학교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다(2012, pp. 107-120).

는 등 자신의 수업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업 시작과 마무리를 노래부르기로 하는 등 음악수업에 관심을 갖고 학급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적합한 제곡 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교사 E의 경우 정년퇴임한 교사로 출산으로 1년 동안 공석인 교사의 담임을 대신해서 맡고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에 가장 학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교사이며 연구자의 대학 수업 등 다양한 수업관련 관심을 표현하였다. 수석교사의 경우 음악수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제시하고 자처해서 이번 예술교과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였다. 보건 교사의 경우 학습공동체 활동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표 2> 학습 공동체 참여 교사

구분	담당 학년	교직 경력	비고
A	2-1반담임	23년	활동 시간 및 내용 조정 역할
B	2-2반담임	34년	수업 외 활동 지도
C	2-3반담임	13년	공백기 이후 교직 복귀
D	2-4반담임	10년	수업 동영상 촬영 시 시연
E	2-5반담임	45년 이상	출산교사를 대신해서 1년 동안 담임 근무
G	수석	31년	음악전담
H	보건	22년	보건교사

학습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 초등 현장의 특성 상 예술 교과 중 음악 전담 교사가 있거나 저학년의 경우 음악 교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술 교과로 통합되어 있어 모든 참여 학급 교사가 음악수업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제한점이 음악의 타 교과와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수업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음악교과에 대한 다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2학년 예술교과의 학습공동체 활동은 한 학기에 총 30시간의 활동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진행된다. 차시별 학습공동체 활동 주제와 실행 내용은 <표 3>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것과 같다.

본 학습공동체 활동은 2012년 5월에 시작하여 7월까지 5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

으며 1회별 모임 시간은 3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모임은 S-초등학교의 2학년 학급 중 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교사들의 수업이 마무리 된 이후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표 3> 전문가 학습공동체 주요 활동 및 실행 내용

차 시	주 제	활 동 내 용	실 행 내 용
모임 1	PLC 활동이란?	(예술 교과) 수업 하기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개인의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키워드를 적고 이에 대해 토론했보기
모임 2	좋은 수업이란?	좋은 수업에 대한 개인적 생각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을 이루는 키워드를 적고 이에 대한 생각 나누기
모임 3	우수 수업이란?	우수 수업 동영상 보기	기존의 우수 수업이라 생각되는 수업의 지향점과 현장에서 필요한 좋은 수업 요소에 대해 적고 이를 비교 분석하고 토론했보기
모임 4	열린 수업이란?	수업 동영상 만들기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열린 수업, 수업 나누기를 위한 실행적 방법에 대해 토론
모임 5	PLC 활동이란?	PLC 활동을 통한 PLC 개념 정리해 보기	이제까지의 활동성과 및 다음 활동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매번 모임은 <표 3>에서 제시된 주제와 같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첫모임은 연구자인 필자와 참여 교사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이야기 하고 진행할 연구 내용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후 모임 2-4는 첫 모임에서 얻어진 참여교사의 기대와 요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첫 학기의 마지막 모임에서는 그 동안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돌아 보고 진행될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모임의 진행 절차는 간단한 인사를 시작으로 매번의 모임 주제를 밝히고 주제에 관련된 몇 가지 실행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각 모임의 대화는 녹취하여 학습공동체 활동 이후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모임 시간에 필요한

동영상 자료나 그 밖의 활동 자료들은 이전 시간에 미리 전달해서 참여 교사의 시간에 최대한 맞추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모임의 활동은 C-교육대학교에서 연구하여 제시된 학습공동체 활동 모듈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각 차시별 모임의 사용 모듈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모임 1 - <소통의 중요성 생각하기>와
 <()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나누기>
- 모임 2 - <수업 딜레마 자문하기>
- 모임 3 - <자기 수업 이야기>와 <수업 관찰하기>,
 <수업 대화나누기>
- 모임 4 - <공동 수업 설계>
- 모임 5 - <자기 수업이야기>

각 모듈의 적용은 제시된 지시나 형태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모임별 상황이나 교사의 요구에 적절하도록 변형하거나 수정해서 적용하였으며, 한 모임에 하나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듈 적용 절차는 참여 교사 모두에게 모듈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 흐름을 따르기 보다는 본 연구자가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로써 사용하였다. 이는 각 모임의 편하고 자연스런 진행에 최대한의 초점을 두고 진행상 도출되는 참여자들의 논의와 요구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을 피하여 최대한 자연스런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대학과 학교의 공동체 조직에서 대학의 교수학자는 조정자(coordinator)와 촉진자(facilitator)로 구분된다고 한다(나귀수, 2010, p.379). 조정자가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이라면 촉진자는 말 그대로 어떠한 활동이나 논의 등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촉매나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질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참여자들의 협력이다(구원회 외, 2010; 이현명 외, 2011; 구원회, 2011, 구원회, 2012). 대학교수자의 역할은 조정자가 아닌 촉진자로서 말하기 보다는 듣고 요구들을 실행하는데 실천적인 도움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자는 촉진자의 입장에서 본 연구의 진행을 최대화하려 의도했으며 그 결과 연구 진행의 절차를 정리, 소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보고의 형식을 띄게 됨을 밝힌다.

다음 장의 내용은 참여 교사들의 각 모임별 활동 중 작성한 수업에 대한 글쓰기, 주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물, 그리고 모든 모임 활동에서 얻어진 녹취록 내용과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수업 지도안, 수업 동영상 등)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연구 참여현장 교사들의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과 예술교과 현장 수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V. 학습공동체 활동의 실제 및 논의

본 고에서는 지면상 위 <표 3>에 제시된 5번의 모임 주제 중 학습공동체 활동의 시작 부분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함께 만들어 보는 수업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 교사의 인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설문 내용, 녹취 내용 및 참여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업 지도안이나 수업에 대한 글쓰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취사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의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 및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PLC 활동이란?

1) 주제와 방향 설정

모임 1은 첫 만남인 만큼 서로에 대한 소개와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자연스런 대화 속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2010년 PLC를 구성하고 시작하던 당시와 비교해서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보와 인식은 변화하였다. 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나 협력에 대한 연구, 조사 자료가 C-교육대학교 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료나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 하나의 예로 주지교과 위주의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다양한 교과로 확장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5월에 첫 학습공동체 모임 전에 연구원의 정기적인 학술모임 및 학습공동체 준비 모임을 통해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진행하는 단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PDS 및 학습공동체 연구에서 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공동체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협력’이며 이질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구성원간의 유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학습공동체 활동 결과를 성취하기 이전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구원회 외, 2010; 이현명 외, 2011; 구원회, 2011, 구원회, 2012). 이에 굳이 주제를 정해 놓고 이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학년의 예술교과 지도를 위한 교과서가 어떠한지, 수업 이전에 예술교과에 대한 교사 자신의 수업 주제에 대한 친밀함이나 선호도가 어떠한지 등 교사 개인에 대한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고에 논의의 흐름이 드러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적을 수는 없지만 그 중 경력 13년 차인 교사에 의한 저학년 예술교과 수업에 대한 글은 현 예술교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제시한다.

젊은 시절 유치원에서 근무한 과거에는 정말 피아노를 치면서 신나게 수업을 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현장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음악수업이 타 교과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든다. 현재의 나에겐 음악은 어려서부터 좋아 하긴 했지만 자기개발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현장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며)…, 신나게 흥나게 수업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예술교과(음악교과) 수업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과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이 수업 목표이자 학습내용이 된다. 예를 들어 학습 목표가 ‘다장조 음계를 익힌다’라고 하면, 교과내용은 다장조 음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수방법이 건반악기의 음계를 치거나 음계의 음정을 정확하게 소리 내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예술교과(음악교과) 수업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참여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는 자신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 하고 싶다는 바람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교사 자신의 동기화를 차지하고라도 여러 제도적 환경적 제약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2) 내용 지식과 실행 방법

참여 교사 중 연구자의 대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보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초등학교 현장의 예술교과 수업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문적인 이해가 초점이 되는 수

업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실행을 통한 ‘해보기’에 초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다음은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한 여교사와 관점이 다른 수업에 대한 논의 중 초등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고민을 나눈 대화내용 중 일부이다.

연구자: (전략)…예술 교과 수업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차원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에게 음악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 자체를 교사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배우는 학생이자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셈입니다.

교사 A: 근데 하다보면 그냥 노래면 노래, 리듬치기면 리듬치기를 (단순하게) 손뼉 치거나 발 구르기 형태로 뿐이 못해요.

연구자: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점은 음악 수업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중략)…가르치고 나서 애들이 학습한 내용을 소화했는지 지켜보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행정적인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깐요…그래서인지 현장 음악수업은 생각이나 지식을 그냥 주절거리는 느낌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주지시키는 것입니다…온전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완성 됐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죠…배운 것을 가르치면서 완성 한다는 말처럼 수업 내용이 어느 면에서 교사에게 도전적이길 기대하기도 어렵구요…그런 만큼 수업에서 자극받고 동기부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중략)

교사 B: 예전에는 노래만 한 것이 아니고 이론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맞아요)…음표, 쉼표 이런 거나 (도돌이표) 박자 같은 거…근데 요즘에는 (기본이)뭔지 모르겠어요. 한 학년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그렇고.

교사 C: 교육과정들도 그런 걸(이론) 지도하게 아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교사 B: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교사 D: 음악전담이 생기면서 우리가 음악하고 굉장히 떨어진 느낌 있죠... 어려워서 수업하기 그렇기도 하고...

교사에게 기대되는 지식에는 교과내용(content knowledge)에 관한 것과 교수방법(pedagogical knowledge)에 관한 것이 있다. 교사가 교실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면서 얻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축적이 위 두 지식(knowledge)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완성된 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와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행적 방법이 바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공동체 활동이며 지속적인 연구과 축적된 결과의 체계화일 것이다.

3) 모듈 적용의 예

모임 1에 적용한 모듈은 ‘예술교과 수업하기’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나누기였다. 초반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논의의 흐름이 예술교과(음악교과)수업을 이리저리 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화들로 진행되었다.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이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어 보기로 하였다. 각자의 예술교과 수업을 하는데 있어 두려운 점과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점에 대해 종이에 적은 후 칠판에 적은 종이를 부쳐서 공유하는 것이다. 각 내용에 대해 돌아가며 설명을 하거나 이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토론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은 글쓰기를 통해 문제나 어려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자 간의 피드백과 정보 공유를 통해 교사 자신이 자발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는 동기를 부여 할 것을 기대하였다. 다음은 두려움과 희망의 내용을 개괄 정리한 것이다.

<표 4> 예술교과 수업하기의 두려움과 희망 나누기

두려움	희망
○ 실기능력이나 전문성의 부족 ○ 체계적인 지도시간의 부족 ○ 전문적 예술교과 수업 모델의 부재 ○ 교실, 자료 및 예산의 부족 ○ 수업 내용이 많아 진도의 부담 ○ 다른 교과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 정책적인 예술교육의 부흥책의 필요 ○ 교실 환경의 리모델링 ○ 성취 평가에 예술교과를 포함

두려움에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에 관련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실기능력 전문성,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부족을 강조한 반면 개선을 위한 희망 사항에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는 현재 처해 있는 예술교과의 환경적 조건들이 매우 열악하며 개선하는데 즉각적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또한 현장에서 예술교과 수업이 다른 교과로 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이미 수업 시수가 부족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열악한 환경 조건 만큼 교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함께 하는 수업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술교과 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에게 각각의 수업 동영상 을 만들어서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열린 교실’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자신의 수업을 들여다보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제안이었다. 가능하다면 참여 교사 모두에게 같은 교과 수업, 특히 음악 수업을 하기를 제안하였다. 첫 제안 이후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 나누기’와 ‘우수 수업 동영상 보고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각 활동 주제는 첫 모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거치면서 ‘함께 만드는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여 교사들의 논의를 통해 다 같이 하는 수업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먼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나 교재, 교구의 적절한 사용, 학습을 위한 적절한 동기 부여 등이 언급되었다. 설문 조사를 통한 글쓰기에는 4분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이 후 ‘좋은 수업’을 주제로 참여 교사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매 모임에 반복적으로 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좋은 수업의 요소로 상호 관계에 대한 요인들을 강조한 점이다. 현장 수업에 있어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야 할 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함께 하는 수업 만들기’ 활동 내용

	좋은 수업에서 필요한 요소	수업 동영상 관찰 내용
A교사	○ 명확한 목표 도달 ○ 교사-학생 상호 소통	○ 수업 자료 제작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사가 지시를 할 때 취하는 행동거지가 강압적
B교사	○ 아동과의 상호작용 ○ 학습 분량 조절 ○ 적절한 교실 환경	○ 교사의 열정 ○ 명령적 교사의 지시어투는 아쉬움
C교사	○ 좋은 수업 자료의 적시 사용 ○ 교재 재구성	○ 음악 수업을 위한 환경 지원이 부러움 ○ 평소 지도 교사가 반복 지도 했을 가능성이 있음-아니라면 아이들이 특화 됨
D교사	○ 칭찬과 격려가 있는 수업 ○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업(교사와 아동 모두) ○ 아동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	○ 다소 강제적인 교사의 지시적 언어 사용이 아쉬움 ○ 수업 내용의 체계적 접근이 시간 효과적일 듯함

함께 만드는 수업 동영상은 ‘창의인성 교수-학습’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졌다. 초등 저학년 수업의 특성상 예술교과에서 음악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수업하기가 어려우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교과 진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학습공동체 주제에 적절하도록 고심하여 정한 수업 주제였다. 학습 주제는 ‘우리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를 살펴보고, 이웃을 발견하기’였으며 예술교과 관련 학습목표로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여 듣고 찾을 수 있다’와 ‘다양한 형태로 흉내 내는 소리를 표현 할 수 있다’로 정하였다. 수업 안 작성, 필요한 교구 준비 및 대표 교사의 수업 진행을 위한 세부 계획 등이 학습공동체 교사 모두가 참여한 사전 회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으며, 수업 당일 촬영 및 여타 여건의 준비들이 모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 졌다.

촬영된 수업 동영상은 여건 상 각자 시청하였으며, 이후 마지막 모임에서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해 글쓰기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였다.

대표 수업을 한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해 상당 부분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었으나, 다른 교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업 진행이나 준비 과정에 만족하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업 자료나 수업 이야기들을 비판적 견해나 수업 공개라는 의무에 의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을 결론으로 모을 수 있었다.

본 활동 주제인 ‘같이 만드는 수업’의 경우 수업에 대해 평가나 보이는 수업이라는 의무감을 배제하고 자연스런 상황에서 ‘열린 수업 이야기’를 위한 과정을 중시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 후 수업 자체의 질적 평가나 분석을 중점으로 하기 보다는 같이 만드는 수업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가능성에 대해 참여 교사 모두가 느끼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활동의 의의를 두었다. 또한 참여 교사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만드는 수업 동영상을 통해 협력 체제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업 동영상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나 만들어진 모든 자료와 이 후 같이 만든 수업 동영상을 보고 논한 자료들을 본 고에서는 생략하지만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수업이나 교과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자료로 이 후 교과별 내용에 관한 다른 방향의 연구들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초등 현장의 저학년 음악수업은 사실 통합교과로 주로 만들기를 병행한 노래 부르기과 같은 간단한 활동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 통합적인 저학년의 예술 교과 수업이 앞으로 초등 예술 교과 수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면이 있다. 참여교사의 수업에 대한 한 글쓰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음악을 음악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융합하고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등 예술 교육의 진정한 방향이지 않을까 한다.

위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공유하였다. 특정하게 요구되어 지는 수업 틀이나 수업에 대한 공개, 평가의 압박을 벗어나 비슷한 수업 환경에 있는 교사들이 매일의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러한 담론의 장을 필두로 본 연구의 학습공동체에서는 공동수업설계를 통한 수업 동영상 만들기를 첫 분기 활동의 성과로 생각한다. 같이 수업을 준비하고 설계해서 자신들이 한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수업보기를 통해 위에 제시한 수업에 대한 분석과 성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수업의 공개가 아닌 우리 수업에 대한 고민이고 설계에 대한 결과 확인의 과정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학습공동체(PLC)활동이 갖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예술교과에 대한 실제적 방향을 교육 현장에서 찾고자 한 시도이다.

본 연구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좋은 수업’을 지향하는 교사들의 담론의 장을 열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을 하나의 목적하에 실제 수업에 적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다는 조그마한 성과를 지닌다. 이는 앞으로 남은 중요한 숙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형식과 체계에만 중점을 둔 접근이 아닌 학습공동체가 하는 활동 내용으로 PDS의 의의를 찾는다면 교과별 맞춤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용에 충실한 학교와 대학의 양자 간 협력체제 구축 또한 멀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수업과 바라보는 수업,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드는 수업들 사이에서 PDS의 의의를 새롭게 새기고 대학과 학교의 협력 체제를 바람직하게 구축하는데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의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술교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실천적 실행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원희 (2011). 교대와 부설학교 협력에 관한 교사교육자와 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열린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71-81.
- _____ (2012). 교사문화 분석에 기초한 전문성 신장체제(PDS) 구축에 관한 연구: S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5(1), 97-122.
- 구원희, 박영희, 나귀수 외 (2010). 자기주도적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PDS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4(3), 579-599.
- 구원희 외(2011). 단위학교 기반의 연구자-교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191-220.
- 김경은 (2010). 사회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학-학교 간 협력프로그램 개발 : C교육대학교와 S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3), 45-69.
- 김미혜 (2010). 초등 교사의 국어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PDS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 43, 63-103.
- 김민조 (2012). 학교내 교원간 의사소통 네트워크 분석: S초등학교 사례.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교 개선을 위한 협력 학술대회 자료집**, 107-120.
- 김용 (2011).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PDS 전환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초등교육**, 22(2), 205-225.
- 나귀수 (2010). 초등학교 수학 수업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연구. **대한수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학 연구**, 20(3), 373-395.
- 류미해 (2012). PLC활동을 통한 현장 수업 개선 방안 연구: 저학년 음악 수업을 중심으로. **제 43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집**, 185-190.
- 박영희 외 (2010).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청주교대-새터초교 협력 프로그램. **PDS를 적용한 대학과 학교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세미나 자료집**, 7-30.
- 석문주 (2008). 미국 음악교사기준의 새로운 변화. **음악교육연구**, 34, 25-53.
- 이현명, 박영희, 구원희, 심영택, 김용 (2011). 교육대학-부설초교 간 PDS(전문성 개발체제) 협력에 관한 실태 조사: 교수들의 협력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열린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51-70.
- 엄훈 (2010). 수업 비평 개념에 대한 대안적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3(2), 79-101.
- 이현명, 박영희, 구원희, 심영택, 김용 (2011). 교육대학-부설초교 간 PDS(전문성

개발체제)협력에 관한 실태 조사: 교수들의 협력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열린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51-70.

정다운 (2011).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음악교육연구**, 40(3), 25-58.

Elbaz, F. (1981).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 Report of a case study. *curriculum Inquiry*, 11(1), 43-71.

Holmes Group(1986). Tomorrow's teachers: a report of the Holmes Group. *East Lansing, MI*. Author.

ABSTRACT

A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achers' teaching proficiency through the activity of PLC in the art subject

Ryu, Mi-hae

This research is based on PDS(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of the teacher's teaching ability and the professional perspectives. One of the suggested methods of PDS practice for the field of education is forming the 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t usually consists of the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the teachers of schools. The purpose of PLC is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ield of education and make a open channel between the research and the actual field, striving for the growth of the qualified education system in general. In order to understand how PDS and PLC can work for this purpose, try to define the meaning and the methodological way of practice for this research, along the required standards as the art teachers in the states for an example. Then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field teachers who teach the lower grades in the elementary schools can be found on teaching the arts for the students. Through the process, expect to get a general notion of teaching the subject of the art in the elementary school systems. This research is still in process and the cumulation of the effort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the research and the practice in education can open a new door for many difficulties we are currently facing in the art education.

key words: PDS, PLC, art education, action research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0월 22일(10월 29일), 게재 확정일: 11월 6일